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7. 18.(목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신교통서비스과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사무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4770, 4756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이번 「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」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,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.
- 이번 개편방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,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타다 등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및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책입니다.
- 일부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립니다.

< 1.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 제기 >

① “사회적 기여금 납부”

-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해 왔으며,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,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해외의 경우도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

* 미국 뉴욕주 전체운송요금의 4%,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용건당 1\$ 등

② “렌터카 사용 가능 여부”

-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확보 방법의 하나로 “렌터카”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,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2. 택시기사자격 한정 관련 >

-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,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입니다.
-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,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과 검사,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(택시운전자격) 채용될 수 있습니다.

< 3.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 관련 >

-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,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.
- 다만,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,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,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7.18, 조선, 동아, 중앙, 한국, 서경 등) >

- ◆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 높아졌다
- ◆ ‘더 비싼 택시’ 타는 셈 등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박효철 사무관(☎ 044-201-47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